



첫눈 오는 날 찾아온 손님

김리리 글 · 김소라 그림 | 문학동네
초등 1학년 이상

책 소개

홍시처럼 무르고, 고구마 말랭이처럼 자그맣고, 하얀 털옷처럼 예민하고, 둥글게 뭉쳐 놓은 양말처럼 쿼퀴한 마음들을 불러내 주는 동화입니다. 홍시와 할머니에게 찾아온 반가운 손님 이야기 「첫눈 오는 날 찾아온 손님」과 송이가 좋아하는 양말들만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야기 「내 친구 털뭉치」, 두 편이 담겼습니다.

책을 읽을 때

홍시와 송이, 두 아이의 마음을 찬찬히 상상하며 읽어 보세요. 너무나 심심한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되는 순간, 상상보다 더 멋진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테니까요.

활동1 이야기를 읽기 전에

「첫눈 오는 날 찾아온 손님」의 홍시 이름은 사실 홍시가 아니라 홍지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꼭 홍시라고 불러요. 홍시처럼 두 볼이 발갛고 통통하거든요. 할머니가
“홍시아, 방에서 좀 나와 봐라.” 할 때 홍시는 “나 홍시 아니거든.” 하고 입을 삐죽 내밀어요.
주변에 여러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나요? 무엇으로요?

내 이름은

나를

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럴 때 내 기분은

내 이름을 바꾼다면

로!

왜냐하면



활동2 특별한 하루

첫눈이 오는 날은 일 년에 단 하루,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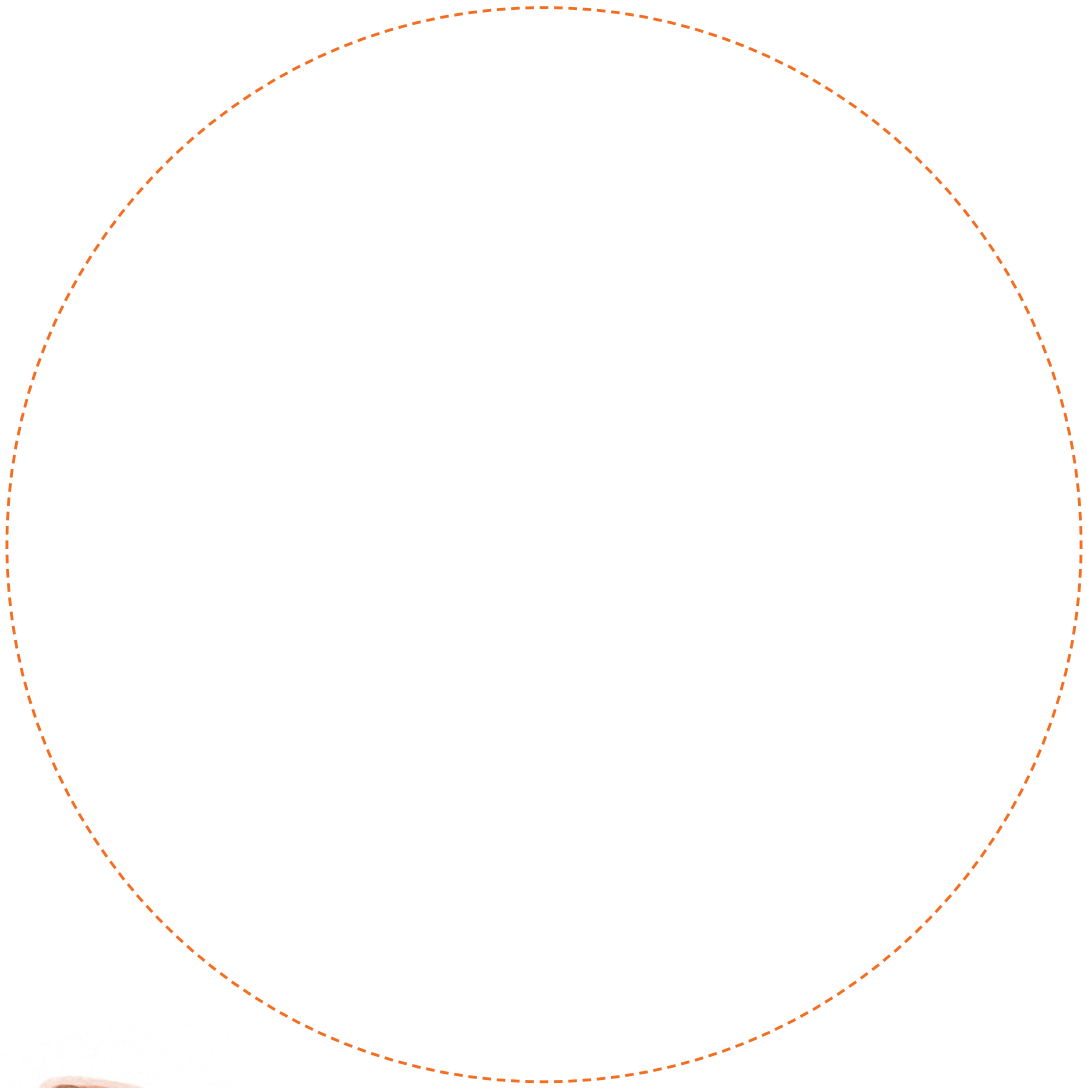
여러분은 첫눈 오는 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누구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날을 상상하며 적어 보세요.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오늘의 특별 메뉴는?

홍시네 집에 놀러 왔던 손님은 홍시를 산속 오두막으로 초대해 새알 듬뿍 단팥죽과 산딸기 눈송이 빙수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초대하고 싶은 손님이 있나요?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고 싶은 메뉴는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상상해서 아래 그릇에 그려 넣고 이름을 지어 주세요.



메뉴 이름



활동4

그동안 만났던 김리리 작가의 동화 속 주인공들 중 한 명에게 초대의 편지를 써 보세요.

만복이네 떡집



소원 떡집



뱅이오, 뱅



화장실에 사는 두꺼비



마법의 빨간 부적



사임 씨와 덕봉이



(01)가

활동5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것이어도 좋아요.

언제부터, 얼마나 소중해졌는지도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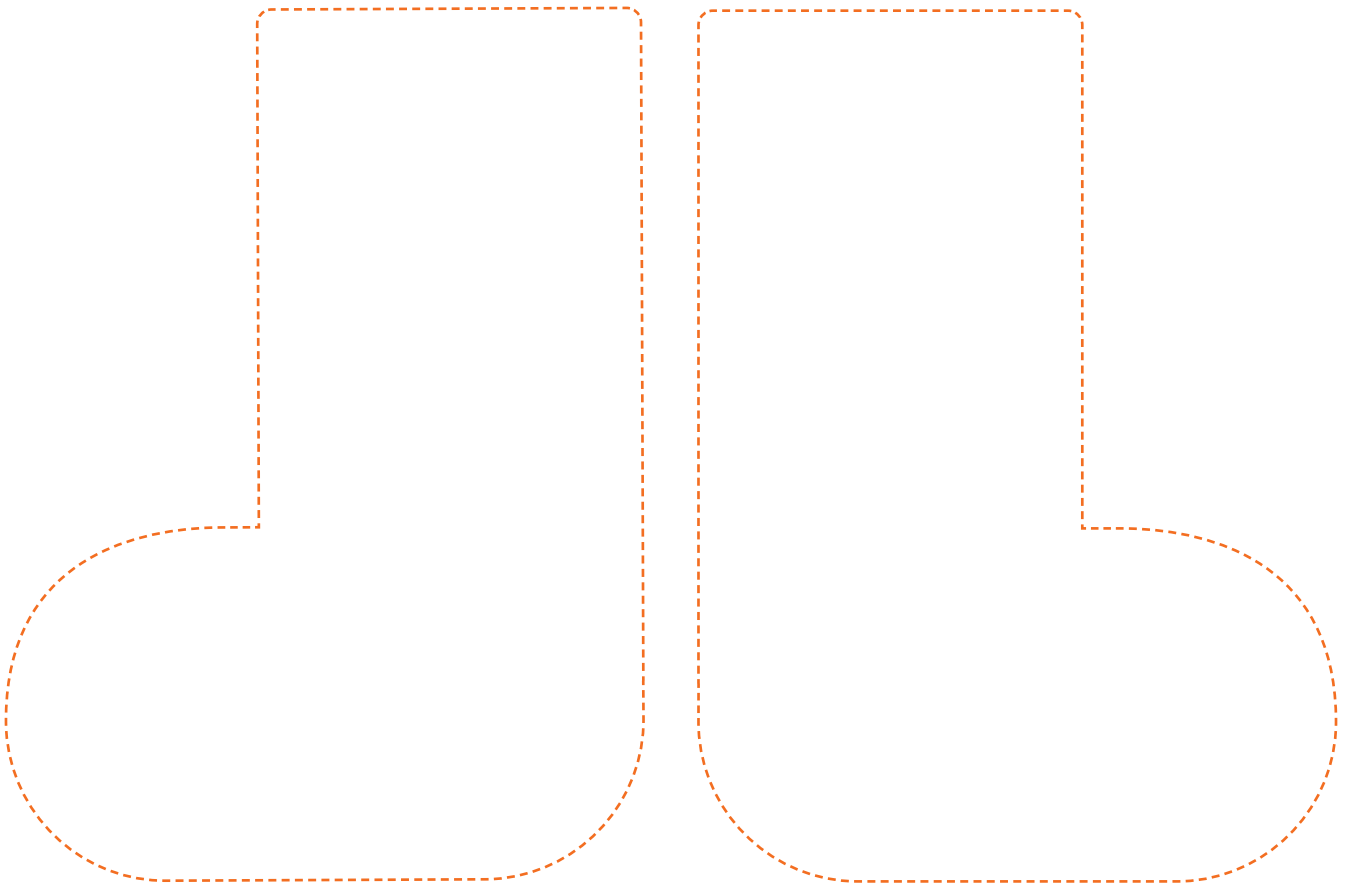
나에게 소중한 것은



활동6 나만의 양말 디자인하기

송이는 검은색, 회색처럼 평범한 양말은 정말 싫어요. 그런데 송이가 좋아하는 양말들이 바구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 짝씩만요.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즐겨 신는 양말이 있나요?

사라지면 정말 아쉬울 것만 같은 나만의 양말을 디자인해 보세요.



활동7 소중한 기억

송이는 가족과 공원으로 산책 갔던 기억이 정말 소중한했어요. 그래서 털뭉치와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털뭉치를 데리고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날 밤 송이는
잊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기억은 다른 기억을 데리고 오기도 하나 봐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어디였나요?

언제였나요?

누구와 함께였나요?

무엇을 했나요?

